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. 15(수) / 총 4매(본문2)
담당 부서	철도투자개발과	담당자	·과장 나진항, 사무관 박정란, 주무관 백현 ·☎ (044) 201-3983, 398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~호매실 예타 통과 -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조속 착수하여, 이르면 '23년 착공-

-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~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*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.

* 경제성분석/종합평가 결과 : B/C 0.83 / AHP 0.518

< 신분당선 광교~호매실 사업 개요 >

- ◇ (사업구간) 수원 광교~호매실 간 9.7km, 정거장 4개소
- ◇ (총사업비) 8,881억원 (예비타당성조사 '18년 기준)

- '03년 신분당선 정자~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~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, 남은 구간인 광교~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.
- 그간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 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고, 분담금 4,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.
- 재기획 용역('17.11. ~ '18.12.)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였고,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.

-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다.
-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'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신분당선 광교~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~광교 노선과 광교 중앙역에서 직결되며,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.
- 현재 출퇴근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되어 보다 “여유로운 아침, 저녁이 있는 삶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영향권이 광교, 정자, 강남 등으로 확대되어 “삶의 질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“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광교~호매실 사업이 ‘광역교통 2030’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되었다. 다른 ‘광역교통 2030’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
- 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혔다.

참고1

신분당선 광고-호매실 노선도



※ 예타단계에서 검토된 노선(안)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, 실시설계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 및 정거장 등이 결정될 계획

참고2

신분당선 노선도 (광교~호매실 포함)



※ 예타단계(신분당선 광교~호매실)에서 검토된 노선(안)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, 실시설계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 및 정거장 등이 결정될 계획